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마인드 어우러진 '꽃각시'

김해성 작가 '꽃각시-Drawing with Digital' 5~ 14일 아크갤러리
"따뜻함과 차가움 중화 위해 인간적 감성과 기술적 요인 결합했죠"

"이번 전시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가의 감성이 투사된 드로잉 위에 디지털 이미지를 덧씌워 만든 결과물이죠."

김해성 작가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예술가다. 대체로 예술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양쪽을 아우르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이번에 김 작가가 '꽃각시-Drawing with Digital'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5일부터 14일까지 아크갤러리.

서글서글한 사람 좋은 인상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다. 유희와 공명을 지녔다. 주관과 객관, 서정과 서사, 인문과 과학 등 서로 다른 특질을 갖췄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시를 앞두고 만난 그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문물, 새로운 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스마트폰을 펼쳐놓고 '디지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세상은 아주 거침없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AI로봇들은 이미 현실 세계에 등장했다"며 "디지털에 의해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 거대하게 확장된 가상의 세상에서 소통한다"고 했다.

김 작가는 새로운 영역이 인간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고 한다. 때로는 회의감도 들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적 결과물들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모시켰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첨단 과학

으로 만들어진 각종 위험한 물질들이 시시각각 인간의 삶과 터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려 들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해 펼쳐내는 봄날 같은 화사한 세상을 구현했다. '꽃각시' 이후 컬러 이미지만을 디지털로 변환해 먹음직스럽게 그려 낸 것.

손으로 그린 그림은 감성이 담겨 있기에 따뜻하지만 디지털로만 완성한 작품은 차갑기 때문이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적 감성과 기술적 요인이 결합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컬러를 덧씌웠다. 이후 컬러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환해 먹으로 드로잉 한 종이 위에 디지털 출력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냈다.

"라인드로잉 위에 디지털 컬러 이미지를 덧씌우기도 하고 전통 재료인 먹을 통한 자연스러운 변점 작업 위에 디지털 채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먹의 자연스러운 변점은 아직 디지털이 월등한 수준으로 구현해 내진 못하는 듯해요."

그럼에도 디지털 채색을 가미한 작품은 다양한 효과를 드러낸다. 김 작가의 작품이 지니는 특징, 즉 유연한 선과 색에서 밝은 기운이 번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때때 들을 수 있는 가곡 '봄 처녀'가 환기되기도 한다. "봄 처녀 제 오시네/ 새 꽃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 울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네"고

예쁜 친구들로 명명된 '꽃각시'는 화사한 봄날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손님이다. 그림 속 '꽃각시'는 한아름 꽃을 안고, 꽃신을 신고, 화환을 두르고, 꽃치마를 입고 있다. 꽃의 품에 앉은 이름 모를 새들은 노랫소리를 맑고 투영한다.

김 작가는 오래 전 컴퓨터에서 그린 그림을 캡처하듯 사진을 찍어 현상하고, 그 위에 실크 스크린이나 동판화를 겹쳐 찍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한 적 있다. 벌써 30년 전 일이다.

그는 "출력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 시절이라 손작업과 기계 힘을 혼합한 형태의 작업이었다"며 "작업 방식이 그때로부터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방식의 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문명에 경도되는 세상은 생태계 다양성과 안전성을 해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디지털의 긍정적인 면을 외면한 채 아날로그적인 행태에만 안주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지요. 기술문명의 수동적 작가가 되기보다는 먼저 능동적 작가로 조율, 작동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김 작가는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웰아트페어, 아트베이징 등에 참여했다.



김해성 작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해성 작가가 오는 5일부터 아크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예쁜 친구들'

지브리&디즈니 OST,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만나다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미야자키 히야오의 영원한 뮤즈이자 영화음악계 세계적 거장 '히사이시 조'의 작품을 감상하는 음악회.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지브리&디즈니 OST FESTA'를 오는 27일 오후 2시, 6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히사이시 조의 대표곡들을 오케스트라와 악기 협연으로 듣는 자리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마녀배달부 키키'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을 비롯해 바이올린 솔로 버전의 '엄마의 빗자루'가 막을 올린다. 이어 단골 레퍼토리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벼랑위의 포뇨' 중 '심해목장&벼랑 위의 포뇨'도 관객들을 만난다.

환상의 비행정들과 해석적, 부유함을 그린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푼젤' 중 '너를 태우고'도 들을 수 있다. 바이올린과 첼로 솔로 버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이웃집 토토로'의 곡들은 마립마 솔로로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알라딘 메들리'를 비롯해 '엘리멘탈'의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Steal the show', '겨울왕국', '모아나' 등의 OST가 레퍼토리에 있다.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 'WISH'의 'This wish'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휘는 임동국이다. 바이올린은 박진희가 맡는다. 김하영(마립마), 디즈니 명곡 커버영양소 화제를 모은 이희주(보컬)도 출연하며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풀 편성으로 협연할 예정이다.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디즈니, 지브리 영화음악을 감상하는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공연을 많은 관객들께서 즐기시길 바랍니다"고 했다.

VIP석 8만8000원, S석 4만4000원, A석 3만3000원. 인터파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어린이 위한 공연·숲 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 10월까지 문화행사 다채



지난해 진행한 박물관 숲 이야기 장면.



지난해 진행한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 장면.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 '어린이 박물관 숲 이야기'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예령·광주박물관)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마련한 대표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신록이 무성해지는 4월부터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까지 펼쳐지는 두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올해도 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필수.

먼저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 (4-10월 매월 1회)은 매직쇼 및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4월 20일 주니엔터테인먼트의 '공룡에니메이션쇼'를 비롯해 5월 18일 '김스드로잉연구소의 '오리지널 드로잉쇼' 공연이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박물관 정원에서 숲 해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어린이 박물관 숲 이야기'는 총 6회 진행된다.

정원 속 다양한 식물을 모티브로 광주박물관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는 시간이다.

특히 4월에는 '푸른 미르 나르샤, 용이 피었네'를 주제로 박물관에서 용을 찾고 꽃과 연계한 오브제 활동을 펼친다.

4월부터 6월, 10월의 둘째 주 토요일 운영되며, 8월과 9월은 월 1회 평일 저녁에 진행된다.

한편 이예령 관장은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 '어린이 박물관 숲 이야기'는 광주박물관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박물관에 들러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문화허브 '호랭이 스쿨'

15일까지 참가자 모집

'예산을 집행하고 문화기획을 펼치는 프로젝트', '나라도움과 유리알관리시스템 행정시스템 실무 배우는 시간'.

청년문화허브가 예비 문화기획자들을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 '호랭이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15일까지 만 18-39세 청년 중 문화기획을 배우고 싶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4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문화기획자의 삶, 역할, 활동분야 등을 배우는 '기획 입문과정'부터 기획서 작성, 예산 확보 및 홍보와 행정, 회계, 단체설립을 알려주는 '기획 실무과정'에 이어 프로젝트 실습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에게는 프로젝트 실습비 및 아티스트 공간이 제공되며 최우수 참가자(2인)에게 광주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료 후 실제 문화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스트(post) 과정 등 혜택도 마련된다.

호랭이스쿨 정두용 학교장은 "호랭이스쿨은 문화기획 전반에 대해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며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교육비 무료. 청년문화허브 블로그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색이 물을 타고 스스로 꽃을 피워내다

김경민 '어반...색으로 물들이다' 전, 5일까지 일곡갤러리

디자인을 전공했던 김경민 작가는 오랫동안 붓을 잡지 못했다. 결혼 전 미술학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가정을 꾸리면서 학원 운영을 접었다. 그동안 아내와 엄마로서 일상 생활을 해왔지만 내면 한 칸에는 그림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내져 있었다.

작가는 10여년 전 수채화를 그리며 그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현장성이 특징인 어반스케치에 빠져들었고, 이후 그림을 그리며 어반스케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민 작가의 '어반...색으로 물들이다' 전이 오는 5일까지 일곡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어반스케치 릴레이 개인전 마지막으로 기획된 전시에서는 화려한 색의 수채화 작품과 일상을 그려낸 어반스케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10여 권의 드로잉북 등도 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좋은 그림 인연 맺게 해 주길 기도한다. 작은 마을, 좁은 골목 친구되어 눈길 머문 거 거 인연 닿아 꽃을 피운다"며 "어떤 꽃이 피어나도 세상은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다. 그려진 꽃은 내게 숨결이 되어 꿈을 키운다"고 전한다.

작가의 눈에 닿는 마을과 좁은 골목 등은 정겨운 소재가 된다. 눈길기 머무는 곳은 작품 안에서 의미있는 꽃으로 피어나고 향기를 발한다.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와 같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

'하얀마을의 장미'는 화려하다고만 생각했던 장미가 수



'농소화'

수하면서 소담한 분위기를 피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충하니 솟은 전봇대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전깃줄, 그 너머 하얀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시원하면서도 신비롭다. 색이 물을 타고 스스로 꽃을 피워내는 일은 작가가 그토록 그리고 싶던 세계에 다가가는 과정일 터다. 세상이 맑고 화사한 색으로 잔잔히 물들여질 기원하는 마음 또한 투영돼 있다.

전시를 기획한 윤민화 광주예술공간연구소 대표는 "이번 릴레이 개인전을 통해 작가들이 그동안 내면에 담고 있었던 그림에 대한 열망을 볼 수 있었다"며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